

‘검은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해하기 :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한창훈*

1.

최근 들어 제주도는 제주 해녀¹⁾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제주 해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이나 그 위세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노력에는 행정적 측면 이외에도 학술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필자가 출판된 지 10여 년이나 지난 김영돈의 『한국의 해녀』 서평을 이 시점에서 쓰고자 하는 것도, 이 책의 학술적 위상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영돈 선생의 주 전공은 민속학 그 중에서도 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민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민요를 들 수 있

* 전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1) ‘해녀’라는 용어는 일반화되어 많이 쓰이고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서평자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잠수(潛嫂)를 사용한다. 그러나 본 서평에서는 필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일관되게 ‘해녀’라고 한다.

다. 민요는 전통 사회의 생활상 필요에 의해 불리는 것으로, 그 시대와 사회의 산업, 풍토, 관습 가치관 등이 올곧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민요는 기능, 창곡, 사설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연히 이를 총체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연구를 통해 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그 동안의 연구는 이 중에서 그 어느 하나에 주목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한국 민요를 대상으로 하여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적 연구 중에서, 초기이면서도 중요한 업적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정옥의 『조선 민요 연구』²⁾를 들 수 있다. 그 당시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한국 민요를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이 연구는 민요의 연구는 물론 한국 구비 문학의 연구 성과를 한껏 높인 바 있다. 이후에 임동권 등에 의해 한국의 민요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성격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 김영돈 선생이 제주도라는 지역에 집중하여, 제주 민요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설 채록집인 『제주도 민요 연구(上)』³⁾를 출판했다. 이른 시기 획기적인 업적으로 평가되는 이 자료 집에는 한반도 본토에 전승되는 민요와 그 양과 질에서 크게 변별되는 제주 민요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 특히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해녀 노래인데, 바로 이 지점이 김영돈 선생이 제주 해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이유로 생각된다. 민요 연구에 그치지 않고 민요의 주체 즉 제주 해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가 집결해 있는 것이 바로 본 서평의 대상인 『한국의 해녀』이다.

2) 고정옥, 『조선 민요 연구』 (수선사, 1949)

3)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上)』 (일조각, 1965)

2.

김영돈 선생의 『한국의 해녀』는 분량만 보더라도 46배판의 큰 크기에 567페이지에 이르는 거작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민속, 역사 전 부문에 걸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진 자료이다. 사진작가 서재철, 강만보에 의해 제시되는 사진 자료는 비록 흑백 사진이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대단히 소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제1장 해녀의 특이성과 연구방법
- 제2장 해녀기술
- 제3장 해녀복과 도구
- 제4장 해녀와 관련된 민속
- 제5장 해녀바다
- 제6장 바깥물질
- 제7장 해녀 사회의 공동체 의식
- 제8장 해녀의 권익과 수탈
- 제9장 해녀의 지역적 고찰
- 제10장 해녀 항일 투쟁

해녀란 ‘바다밭, 곧 지정된 공동어장에 무자맥질하여 해조류 등을 캐고 그 수익으로써 생계를 삼거나, 살림에 이바지함을 직업으로 삼는 여인’으로 뜻풀이하는 김영돈 선생은 본 저서에서 ① 문화인류학적 내지 민속학적 관점 ② 경제적 관점 ③ 생리학적 내지 의학적 관점④ 해양과학적 관점 ⑤ 구전문학 및 민족음악적 관점 ⑥ 법사회학적 관점 ⑦ 어학적 관점 ⑧ 여성학적 관점 등의 총체적 연구 시각을 제시했다. 물론 특정한 연구자가 이 모든 관점에 정통할 수는 없겠으나, 연구의 시각 자체를 이렇게 잡는 것은 옳다고 여긴다. 그리고 연구자 스스로가 앞장서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를 선

도했음이 중요한 점으로 보인다.

제주도 해안 마을에서 해녀들은 물때에 맞추어서 ‘물질’을 하며, 계절과 농번·농한기의 구분 없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농업 노동을 한다.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 속에서 특별한 장비도 없이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며, 특히 입덧과 출산 전후에도 물질을 한다. 제주 출신 해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해안 지대 그리고 일본에까지 진출하여 정착하여 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출가 물질을 나왔다가 출가지에서 남편을 만나 정착하거나 남편과 함께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기술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해녀들은 특별한 장비의 도움 없이 1회 2분 정도의 물질을 통해 해산물을 채취한다.

제주 해녀들은 제주 경제의 주춧돌이기도 하다. 최근까지도 제주 해녀의 어획고나 어획량이 제주도 수산업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꾸준히 확보해 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바다밭’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적인 성격의 계모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제주 해녀라는 존재를 특이한 사례로 볼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고찰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

하여튼 여성이 거의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맥질만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노동은 제주도의 전통문화의 담론 속에서 줄기를 형성하여 왔다. 김영돈 선생은 이런 기본 전제하에 제주 해녀의 어로 도구와 민요, 의복, 타지에서의 생활사, 속담과 전설 등의 민속학적 자료를 축적하였다. 이외에도 해녀들의 어로와 종교적 의례를 일상의 생활과 더불어 기술한 민속기술지로서 당시의 중요한 사진과 기타 자료를 담고 있기도 하다.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놓지 않아서, 제주 해녀의 발생과 그 전파에

대한 연구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제10장에서는 1931~1932년에 있었던 구좌읍 제주 해녀의 항일 운동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 있어서,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진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김영돈 선생의 『한국의 해녀』는 제주 해녀에 대해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설서이자 전문 연구서이기도 하다.

3.

앞 장에서 개략적으로 본 것처럼, 김영돈 선생은 총체적인 연구 결과, 제주 해녀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모습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서평자는 제주 해녀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도 고려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그림자란 ‘진취적이고 강인한 모습’ 뒤에 숨어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적 삶의 모습’을 지칭한다. 물론 제주 해녀가 진취적이고 강인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강인함 이면에 존재하는 힘겨운 삶과 시대의 무게를 먼저 읽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은 제주 해녀의 항일 투쟁을 소설화 한 현기영의 『바람타는 섬』⁴⁾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다.

해녀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무학력자, 전통적 방식의 일을 수행하는 강인한 해안 여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들은 현대산업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⁵⁾이다. 때문에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해녀들에 관한 담론들은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은 다른 세계의 특수한 존재가 아니며, 그들이 창조해 온 생활

4) 현기영, 『바람타는 섬』 (창작과 비평사, 1989)

5)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222-223쪽.

세계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화적 보편성을 발견⁶⁾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도 천대받던 해녀들이, 그들의 근면하고 강인한 생활상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날은 제주 여성의 전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이 동반되지 않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가는, 해녀들에게도 초과 노동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고, 제주 여성들에게도 억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면서 만들어진, 젊은 여성을 모델로 성적 매력이 강조되는 일부의 상업주의적 이미지화는 해녀들에게도 자기 비하와 소외의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강한 여성으로 자신을 보는 제주 여성들은 한편으로 자신의 실제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러한 신화적 이미지와 갈등을 겪게 된다. 강한 여성의 이미지 뒤편에 ‘고생하는 여성’, ‘희생하는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주 해녀는 물질, 밭일, 가사일 등 현실적으로 고생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저력을 가진 불굴의 정신력 소유자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제주도가 역사적으로 타자와의 권력 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탈에 대한 순응과 이에 대한 저항 정신 등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해녀의 삶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상상하듯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이들은 물에서 ‘놀이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한 바다에 몸을 던지는 직업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때문에 이들의 삶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따라서 제주 해녀의 모습이 근면하고 진취적이고 강인하다 하더라도, 그 의미의 실질은 구분되면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서평자가 보기에 제주 해녀의 가슴에는 한이 골 깊게 자리잡고

6)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41쪽.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들의 진취적이고 강인한 정신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진취적이고 강인한 그들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설움과 힘겨움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현실과 무관하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만 작용하게 된다.⁷⁾ 김영돈 선생의 『한국의 해녀』 566쪽에 나와 있는 기원하는 노파 해녀의 얼굴에서 서평자는 이런 마음을 읽는다. 이런 이해가 단지 서평자의 편견에 의한 것일까?

4.

이상에서 대단히 거칠게 김영돈 선생의 역작 『한국의 해녀』를 살펴 보았다. 글의 시작에서 서평자는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제주도의 행정적 노력이 글쓰기의 동기가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서평자도 당연히 제주 해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을 괄호에 넣고 신화로 이미지화 된 제주 해녀가 하나의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꼭 지적해 두고 싶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제주 해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 해녀를 보전하려는 운동과 더불어 학술 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런 움직임이 제주 해녀의 보전과 전승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보전된 전통문화로서의 제주 해녀가 박제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논거가 있다.

서평자는 고심 끝에 이 글의 제목에 ‘검은 바다’라는 말을 넣었다.

7) 한창훈,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 350쪽.

시인 문충성은 「제주바다」에서 ‘누이야 원래 싸움터였다 …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 괴로움을 삭이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다.’ 고 했으며,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서평자는 이 전쟁 같은 삶의 최전선에 해녀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런 제주 해녀의 진면목이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낭만적이기 보다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제주 해녀의
진면목이야 말로 유네스코를 넘어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아니 문화유산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리
고 우리의 할머니(할망), 어머니(어명)의 참모습인 것이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랜 기간 자료를 검토하고, 생각을
정리해 온 필자의 논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음을 고백한다. 대부
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서평자가 굳이 크게 문제
를 삼을 만한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지
엽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향후 생각의 폭을 넓혀 보자는 의도를 밝
힌다. 아무래도 이런 작업은 우선 학자들이 앞서서 해야 할 것인데,
다행히 김영돈 선생 이후에 좌혜경, 이성훈, 안미정 등의 후학들이
좋은 후속 업적을 내고 있다. 그러나 좋은 학술적 연구에 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이들의 이어지는 후속 연구에 주목해보도록
하자.

참고문헌

- 고정옥, 『조선 민요 연구』 (수선사, 1949)
김영돈, 『제주도 민요 연구(上)』 (일조각, 1965)
안미정, 『제주 잠수의 바다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연구』 (학고방, 2010)
좌혜경 외, 『제주 해녀와 일본의 아마』 (민속원, 2006)
한창훈, 『고전문학과 교육의 다각적 해석』 (역락, 2009)
_____,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
현기영, 『바람타는 섬』 (창작과 비평사, 1989)

교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E-mail: hanch@chonbuk.ac.kr)

논문투고일 2013. 12. 30.
수정완료일 2014. 2. 2.
게재확정일 2014. 2. 9.